

이 주의 투자 포인트 (5월 4일 주)

이번 주는 AI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성장 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서버,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AI 산업이 특정 기업에 국한된 흐름인지, 아니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했는지를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점도 주요 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시장 변동성을 가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거나 고용이 견조하게 유지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추가로 후퇴될 경우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1. AI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S&P500 기업의 약 63%가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가운데, 기업들의 전체 이익 성장률은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60%를 상회하며 시장 전반의 실적 개선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는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주에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기업들이 있습니다.
- 현지시각 기준 4일 팔란티어, 5일 AMD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6일에는 ARM과 코히런트, 7일에는 아이렌, 코어위브, 사운드하운드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은 AI 산업 성장세가 반도체, 서버 인프라, 전력 등으로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장에서는 AI 산업의 구조적 병목 해소 여부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도체 공급 부족을 넘어,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가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력/유틸리티 기업인 듀크에너지(한국시간 5일 밤), 비스트라(한국시간 7일 밤), 광통신 인프라 기업인 루멘텀 홀딩스(한국시간 6일 새벽), 코히런트(한국시간 7일 새벽) 등의 실적은 전력, 네트워크 공급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이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기업의 실적이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연결 고리가 실적을 통해 확인된다면, AI산업은 특정 빅테크 기업 중심의 성장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초기 인프라 사이클 확대를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빅테크 중심의 실적 성장세가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면, AI 산업 내 주요 부품 및 인프라 공급 기업들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

는 유지되겠지만, 그 수혜가 점차 2차, 3차 밸류체인 기업들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이를 한국 시장에 적용해 본다면, 삼성전자 중심의 흐름에서 나아가 삼성전기, 삼성SDI 등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로 실적 개선 기대와 투자 심리가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접근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밸류체인 내 관련 종목들로 관심 확대를 병행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동 리스크 장기화, 경제 지표 중간 점검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장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며,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에는 물가와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일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와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8일 미국 고용보고서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러한 지표들이 물가 압력의 지속 여부와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 신흥국 자산 매력은 낮아지고 글로벌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단기 상승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대외 변수들이 겹치면 단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 이슈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물가도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지표 악화를 이유로 현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 코스피는 7천선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추가 상승 기대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나 무리한 매매는 지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